



이름:

WEEK 24

Jun 9

사무엘하 5장

본장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1-5절), 왕이 된 다윗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탈환하여 수도로 삼습니다(6-16절).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의 침략에 맞서 싸워 결국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17-25절).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두 번 전쟁을 위해 왔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요? (19,23절)

*평안할 때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나,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왕이 된 다윗은 자신의 높아진 지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깁니다. 이 언약궤는 블레셋 지방에 있다가(삼상 5장),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동안 있었습니다. (삼상 7:1-2) 하나님의 궤를 옮겨 오는 과정에서 옷사가 죽게 되는 비극을 경험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궤는 레위인이 어깨에 메어야 했기 때문입니다.(민수기 4:15) 만약 언약궤를 어깨에 메었다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1)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

2) 12절: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

Jun 10

사무엘하 7장

본장은 정치적인 안정을 이룩한 다윗이 성전건축의 소원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에게 나아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 5절: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2) 11-12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을 짓고, 그의 나라를 ()하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대신 성막에 들어가 앉아 잠잠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사무엘하 8장

본장은 다윗이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다윗은 침략해 온 적들을 물리쳤지, 먼저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7장의 은혜로운 언약의 말씀 이후에 주변 나라를 공격하는 침략전쟁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7:11절에서 '다윗을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그 나라가 견고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이것이 정복 전쟁의 이유입니다.

이러한 정복전쟁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이 두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몇 절과 몇 절인가요?

Jun 11

사무엘하 9장

본장은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에 따라 (사무엘상 20:15-17), 그의 아들 므비보셋을 선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다윗은 므비보셋을 어떻게 대우하였나요?(11절)

*다윗은 은총을 베풀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원수를 찾고 있습니다. 옛적에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은총 베풀 자를 생각하고 찾아내어 은총을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그 힘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의 수고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무엘하 10장

본장은 9장에서 다윗의 은총을 받은 므비보셋과는 반대로, 하논은 과거에 은혜를 입었던 암몬왕 아버지 나하스의 죽음을 조문하러 보낸 사절단을 모욕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다윗의 은총을 받은 므비보셋의 행복과, 다윗의 은총을 거절한 하논의 비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고백하고 반응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Jun 12

사무엘하 11장

본장은 나라가 안정되고, 국력이 커지자 다윗의 영적인 긴장이 느슨해지고, 밋세바로 인해 범죄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죄의 시작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1절), 편안할 때(2절) 시작된다고 경고합니다.

1) 1절: 다윗이 요압과 그의 부하들을 전쟁에 보내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 있었다.

2) 2절: 저녁 때에 다윗의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

*다윗이 자신의 의무를 수행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게으르게 행동하며, 주변을 두리번 거릴 때, 다윗 안에 죄가 강력하게 역사할 여건이 형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도 같은 환경이 죄를 짓기에 쉬운 환경이 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무엘하 12장

사건 후, 정확히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성경은 언급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복을 위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부자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 손님을 접대한 이야기를 통해 지혜롭게 다윗의 죄를 고발합니다.

다윗은 죽어야 할 그 죄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시편 51편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갭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편 51:1-3)

Jun 13

사무엘하 13장

본장은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이 끔찍한 사건이 다윗의 범죄와 관련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12장에서 밋세바와의 사건으로 다윗에게 내려진 징벌은,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12:10)'는 것인데, 13장부터 바로 나타납니다. 다윗의 장남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성추행하자, 다말의 친오빠인 누가 암논을 살해하나요?

*다윗의 죄로 인해 그의 가정에 일어난 끔찍한 일들을 보며,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14장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살해한 후 외할아버지인 그술 왕 달매에게 도망한 지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압이 다윗과 압살롬의 화해를 중재하여 압살롬이 돌아왔으나, 다윗은 압살롬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아 두 해가 지나도록 압살롬을 만나지 않았습니다(28절). 용서를 받은 줄 알고 돌아왔는데, 자신을 맞이한 것은 차가운 거절감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윗과 압살롬은 입을 맞춰 화해를 하지만, 15장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것이 화해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Jun 14

사무엘하 15장

14장에서 다윗과 입을 맞추며 화해한 압살롬은 4년 동안(7절) 치밀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면서(6절) 아버지 다윗에 대한 반역을 준비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소식을 들은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전쟁을 피하고 도주하기로 합니다. 단순히 아들의 반란 때문이라기보다 자기 죄로 인한 결과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 울었다는 기록이 없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다윗은 죄를 기억하고 울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 올라가니라."

사무엘하 16장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고단한 도피길에 오른 다윗은 므비보셋의 신하를 만납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섬기고 그 재산을 관리하라고 임무를 맡겼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므비보셋이 압살롬의 반역을 틈타 사울 왕조를 다시 세우려 한다는 거짓말로 므비보셋을 모함합니다. 세속적이고 거짓이 가득한 이 사람의 말을 믿은 다윗은 므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땅의 소유권을 그에게 넘겨줍니다. 이 사람의 거짓말을 곧이 들어 므비보셋을 판단한 것은 다윗의 실수였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바의 거짓말과 모함은 다윗과 므비보셋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거짓과 모략,

수군거림은 교회안에서 관계와 교제를 깨뜨립니다.